

CU
성수디지털파크점
디지털 전초기지로
나

Life

K-제약
신약개발 자회사
역할 커져
L2

조선·해양 투자확대, 수익 다각화... 지역과 ‘동반 성장’

2026
생산·포용·신뢰의 금융

BNK 금융그룹

BNK금융이 올해 주요 경영 목표로 정부의 동남권 해양 수도권 조성 정책에 발맞춘 ‘지역 중심 경영’을 추진한다. 해운·조선·해상플랜트 등 지역 주요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한계 기업을 지원해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 은행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구조를 벗어나 업무 효율화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디지털전환(AX)도 속도를 낸다.

◆ ‘지역금융’ ‘지역 동반성장’ 노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역금융그룹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해수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정부정책에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해양·물류·인프라 등 특화산업에서 금융허브 역할을 맡고, 대기업과 협력사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를 정립해 금융을 통한 지역 내 부가가치 재생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BNK금융은 인구 감소·산업 유출 등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한 ‘지역과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에 거점을 둔 다른 금융지주(IM·JB)들이 은행 계열사의 시중은행 전환, 수도권 진출 확대 등으로 기존 거점지역 바깥에서 영업 기회를 탐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BNK금융의 강점은 부울경 지역 내에 촘촘하게 갖춰진 기업대출 영업망이다. 작년 상반기 기준 BNK금융의 전체 대출 가운데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다. 같은 기간 주요 시중은행의 51%와 비교해 기업대출 비중이 크다.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90%를 넘는다. 시중은행보다 월등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영업 노하우를 갖춘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본격화했다. 북극항로 시대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BNK금융

지역 특화산업 ‘금융허브’ 역할 맡아
해수부 이전 맞춰 해상물류 성장 도와
동남권 해양수도권 정책 목표에 동참

생산적 금융협의회 출범...지역 지원
지역 핵심산업·한계기업 등 21조 투자

은행 예대마진 중심 매출구조 벗어나
투자전문화, 벤처금융 확대 등 다각화

디지털 전환 가속... 업무효율화 추진
AI·가상자산 등 신규 먹거리 탐색도

에 발맞춰 부산을 해상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재편한다는 목표다. 자본과 산업의 재편으로 금융의 역할이 부각됐으며, BNK금융은 지역에 특화한 영업망을 활용해 정부의 정책 목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NK금융은 작년 10월 ‘생산적 금융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지역 핵심 산업 및 한계기업 투자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목표에 발맞춘 전략이다. BNK금융은 올해 21조원을 지역 기업에 투자·공급한다. 동남권 지역에 한정한다면 금융권 최대의 규모다. 해당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BNK투자증권, BNK벤처투자 등 자회사의 분사도 부산으로 이전했다.

‘생산적 금융협의회’ 출범 당시 BNK금융이 제시한 추진 목표는 ▲국민성장펀드 및 동남투자공사 연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 및 해양특화산업 육성 ▲부울경 지역 집중투자 산업 선정 등이다. 특히 지난해 말 지주사에 설치한 지속가능금융본부를 컨트롤타워로 두고, 자회사간의 협업을 통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 디지털 전환 지속

BNK금융그룹은 작년 연간 연결순이익으로 815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연도보다

약 865억원(11.9%)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자이익의 성장세는 주춤했지만,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빠르게 늘고 대손비용이 감소하는 등 적극적인 수익성 개선 노력이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

비이자이익 증대를 통한 영업이익 확대는 BNK금융의 과제로 남았다. BNK금융은 매출에서 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난해 부산·경남은행의 매출 비중은 약 89.8%다.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은행 의존도와 비슷하지만,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중소기업·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크다. 금리 인하 기조에도 은행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건전성 우려가 큰 지방은행은 대출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

BNK금융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은행 부문에서는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구조를 벗어나 투자 전문화를 추진하고, 비은행 부문에서는 구조화금융과 벤처금융을 확대해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빈대인 회장은 “생산적 금융 전환의 기류 속에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이자이익과 담보자산 중심의 영업 방식을 빠르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라며 “은행은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기업 투자와 전통 제조업의 전환 지원 등 투자 전문화 전략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비은행은 구조화금융·VC를 강화해 그룹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BNK금융은 업무 효율화와 미래 먹거리 탐색을 위한 ‘디지털 전환(AX)’도 지속한다.

BNK금융은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 당시 ‘그룹고객가치혁신부문’을 ‘그룹AI미래가치부문’으로 재편하고, 디지털기획부와 AI사업팀을 통합한 ‘AI디지털전략부’를 설치했다. 그룹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작년 12월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연구조직을 출범해, AI·가상자산 등 신규 먹거리 탐색에도 돌입했다.

빈대인 회장은 “AI와 디지털 경쟁력은 금융사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부상했다”라며 “AI를 업무 효율화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분석, 투자·심사, 리스크 관리 등 업무 전반에 적용해 고객 이해와 자본 배분의 정밀도를 높이는 의사결정의 한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이원화된 전산망도 단계적으로 통일한다. 현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별도의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한다. BNK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전산망을 통합할 예정으로, 통합을 통해 매년 약 1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본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부산 문현로 BNK부산은행 본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1월 3일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상호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슈퍼카 갑질 의혹’ 항의한 측, 법적 대응 예고
“악의적 허위 사실 적시”
▲감독은 잘리고, 주장은 징계받고...손흥민 떠난 토트넘 ‘풍비박산’
/사진 뉴스시스

▲손메대전 무산되나...MLS 개막전서 손흥민 만나는 메시 ‘부상’
▲‘월드컵 모드’ 홍명보호, 내달 코트디부아르·오스트리아와 ‘풀 스팅’

▲백승호도 다쳤다...월드컵 앞둔 홍명보호, 중원 부상 병동
▲‘골절 부상’ 린지 본, 직접 전한 소식...“3번째 수술도 성공적”